

시론



천 세 진
문화비평가·시인

일주일 전쯤 신석정 시인(1907-1974)께서 말년까지 사셨던 ‘비사벌초사’(전주시 미래유산 14호)에서 최근 큰아이의 결혼식을 치렀다.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공간에 뭔가를 설치하고 손님을 초대해 식을 올린 것은 아니었다. 인연의 의미를 소중하게 새긴 귀한 공간에서 결혼의 의미를 새기고 양가 작게 가족 6명만이 단정한 웃을 입고 일상적인 사진을 몇 장 찍는 것으로 결혼식을 대신하고 싶다고 고백을 지키고 계시는 분께 부락을 드렸고 기꺼운 마음으로 허락해주셔서 이뤄진 일이었다.

점심을 조촐하게 나누는 것으로 결혼식은 끝났고 오후에는 아이와 사위가 캠핑장을 빌려친 구들과 음식을 나누고 즐겨를 시간을 갖는 것으로 마쳤다. 친구들 모두 신선하고 재미있고 의미있는 결혼식이라고 칭찬했다고 한다.

큰아이가 결혼하기로 하면서 마음이 철썩으로 덮이고 큰 쇠뿔이 떨어졌다. 아이의 결혼이 싫어서가 아니었다. 예식장을 잡고 청첩장을 보내고 주변에 폐를 끼치는 세간의 일이 반갑지 않아서였다. 아이들과 마주 앉았다. 아이들도 그런 결혼식을 원하지 않았다. 덕분에 ‘작은 결혼식’으로 결정돼 진행된 일이었다.

자치칼럼



김 용 민
송원대학교 교수
품자주자시민들 상임부회장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이 있다. 이는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핵심 정책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이 계획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조적 한계와 현실적 문제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

주민이 주인인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시민단체인 품자주자시민들과 부산 분권혁신운동본부와 함께 진행한 연호남 대토론회 교류행사에서 주민자치와 균형발전이라는 공통의 의제 아래 논의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단순히 지역 대학을 양적 확대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지방의 역량 강화와 산업-교육 연계의 구체적 전략을 담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 고민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첫째, 정책 실현의 시간적 한계다. 정부는 연말 안에 구체적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언명했지만, 지방정부와 대학의 역량을 충분히 진단하고 특성과 방향을 설정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단기간에 보여주식 성과로 추진된다면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독자투고

피싱 사기 범죄는 전화 음성으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부터, 온라인에서 감정을 이용한 ‘로맨스피싱’,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는 ‘메신저피싱’, 위장 링크를 이용한 ‘스미싱’, 그리고 QR코드를 이용한 ‘큐싱’으로까지 진화했다.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신뢰감 있는 군인, 공무원, 교수, 교도관 등을 사칭해 식당이나 모텔 등에서 물건을 거래하는 척 접근한 뒤, 단체 회식이나 단체 숙소 예약 등을 이유로

스펙터클과 작은 결혼식

아이의 결혼에 대해 묻는 상황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어서, 몇몇 자리에서는 청첩장을 만들지도 연락을 돌리지도 축의금도 받지 않겠다고 미리 밝혔다. 대단한 결심은 아니었다. 번거로운 결혼식에 수천만 원을 쓰고 영화나 연극의 한 장면처럼 극화되고 있는 현실이 싫었을뿐이다.

사회적 의례는 극화(劇化)의 역사를 밟았다. 형식(예법)은 내용에 권위와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시간이 흐르면 내용이 아니라 형식이 단단해진다. 내용이 부실해지거나 사라져도 형식은 허물어지지 않고, 오히려 빈약한 내용을 감추기 위해 더 스펙터클해진다.

기 드보르(1881-1994)는 ‘스펙터클의 사회’(1967)에서 스펙터클을 “종교적 환상의 물질적 재구성”이라고 했다. ‘종교적 환상’은 ‘의례’를 유지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다. 유지를 위해 물질적 구성도 필요하지만, 결혼식이 내용과 무관하게 ‘물질적’인 측면이 점점 더 강조되고 이벤트로 무대로 꾸며지는 경향이 확산하고 있다.

막스 베버(1864-1920)는 근대 사회를 ‘탈마술화’로 나아가는 사회로 이해했는데 그런 이해로 본다면 ‘종교적 환상’은 마술화 사회(근대 이전)의 증거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종교적 환상’을 무조건 없애자는 것은 아니다. 예식산업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좋은 일 아니다. 의례의 중심인 내용을 존중하지 않고 과정이 과도하게 물질적으로 치달는 걸 경계하자는 것 뿐이다.

기 드보르는 “스펙터클은 상품이 사회생활을 총체적으로 점령하기에 이르는 계기가

된다. 상품과의 관계가 가시화되며, 사람들은 그것만을 볼 수 있을 뿐이다. 사람들이 보는 세계는 상품 세계이다. 현대 경제의 생산은 상품 독재의 범위와 강도를 확장시키고 있다.”고 잇는다. 정말 그렇다. 요즘 결혼식은 시각적 효과에 무게를 둔 기획 상품이다. 보여주기 위한 프로그램들은 경쟁이 붙어 점점 강도를 더해간다. 근원에는 이미지의 외면화를 추구하는 욕망이 자리하고 있다. SNS와 미디어는 욕망을 더욱 부추긴다.

기 드보르는 “스펙터클은 오히려 물질적으로 표현된 하나의 실질적인 세계관이고, 또한 대상화된 하나의 세계관이다.”라고 덧 붙인다. 시각적으로 드러난 모든 것이 실행자가 어떤 세계관을 가졌는지를, 어떻게 사유하는 존재인가를 정확히 나타낸다. 의례는 이벤트이지만, 궁극적 목적은 내용(의미)을 새기는 것에 있다. 과도함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의미의 땅을 침식하기 때문이다.

작은 결혼식은 침식에 대한 우려이고, 스펙터클 경연장이 된 결혼문화에 대한 작은 반발이고, 사랑의 의미에만 집중하려는 소박한 문화적 선언이다. 모두 같은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건 아니다. 선택의 문제다. 경제적 선택만이 아닌 삶의 태도를 선택한 일이지만, 작은 결혼식도 시간이 지나면서 상업적 취향이나 브랜드로 소비될 위험이 있다. 상업 자본은 어느 것이든 가리지 않고 내용을 형식으로 덧칠하는 일을 타월하게 해낸다.

그것은 후일의 일, 지금은 변화를 시도해야 하는 때다. 일부터도 그렇게 한다면 세상이 조금 달라질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으로 치른 일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자치·분권으로 혁신모델 만들어야

둘째, ‘서울대급 대학’의 개념이 불명확하다. 전국 어디에나 똑같은 서울대를 복제하겠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결국 각 지역의 산업 구조와 인적 자원을 고려한 대학별 특성화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 그러나 아직 정부 차원의 구체적 특성과 분야 설정이나 지원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다.

셋째, 거점국립대 중심 정책의 한계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자연스럽게 기존의 거점대학(예: 전남대, 경북대, 부산대 등)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외의 지역 대학들은 어떻게 연계되고, 어떤 역할을 담당할 것인가? 만약 거점대만 강화된다면 지방 내 또 다른 대학 간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넷째, 지역산업·일자리와의 연계 부족 문제다. 대학의 경쟁력은 결국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에서 나온다. 지역 산업과의 연계 없이 단순히 연구력 강화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졸업생의 수도권 유출과 지역 인적 소멸은 계속될 것이다. 대학이 지역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지역별 특성화 분야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광주는 AI·모빌리티 분야, 대구는 의료·로봇, 부산은 해양·물류, 충남은 반도체·소재, 충북은 바이오 등 각 지역의 산업 기반에 맞는 특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별 대학이 명확한 정체성을 갖고 협력·경쟁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둘째, 거점대와 비거점대 간의 연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단순히 거점대 하나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광주권의 경우 전남대와 조선대·광주과학기술원(GIST)·호남대·광주대·송

원대 등이 ‘광주연합대학체제’로 협력하여 공동연구, 인력교류, 교육과정 공유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거점대에 모든 내용을 담기 어렵다. 그리고 대학마다 특성화돼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특성화분야를 연결하고 연합하는 방법이 고민돼야 한다. 이런 연합 모델은 지역 내 대학 생태계를 통합적으로 발전시키는 핵심 대안이 될 것이다.

셋째, 입시제도의 혁신을 통해 우수 학생을 지방대가 끌어올 수 있어야 한다. 지역 특성화 분야에 맞는 전국 단위 선발권을 부여하거나, AI·모빌리티 등 특화 분야 인재에게는 별도의 입시 트랙을 설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동시에 장학금과 주거·취업 지원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광주광역시나 ‘서울대 10개 만들기’ 국정과제를 선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RIZE 사업을 재구조화하는 일에 착수해야 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단순한 교육정책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주민자치의 제다. 지역이 스스로 미래 산업과 대학의 방향을 결정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구조여야 한다. 다시 말해, 지역의 자치와 분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때만이 이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 이번 연호남 교류행사서 확인한 바와 같이, 지역 간 협력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 그리고 지역이 중심이 되는 균형발전이 이제명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며, 결국 지방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

/이 기사는 지역혁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피싱사기, 의심하고 확인하면 예방할 수 있다

물건을 구입토록 해 송금된 금액을 가로채는 ‘노쇼 피싱 사기’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예방 노력만으로는 완전히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해서 문자나 전화로 기관 또는 공무원의 이름을 언급하거나 사칭하며 접근하는 경우, 명함이나 공무원증 사진만으로는 진위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유선으로 확인해야 한다

(정민우·신안경찰서 경무과)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대규모 노선 개편 광주 시내버스 시민 설문조사

광주시가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관련해 실시한 시민 대상 설문 결과, 호천·선운지구 등 지하철 미개통 지역이나 시외곽을 중심 생활권과 연결하는 신설 요구가 다수 제기됐다. 시는 내년 1월까지 개편안을 마련하며, 이번 조사를 반영할 계획인데, 단순화·직선화를 통해 이동 시간을 단축하고, 주요 지점을 효율적으로 잇는 간선형 확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3천400여명이 참여한 설문에서 중점되거나 후회가 심한 노선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도시’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전격하고 있는 광주시다. 지하철 2호선 개통 시점에 시내버스 노선을 순차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내년 4·6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7월 최종안을 확정해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일정이다. 대·자·보 정책의 핵심이 되는 셈으로, 시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불편과 수요를 최대한 파악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특히 준공영제로 해마다 1천억원 이상 투입되는 재정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활성화가 절실한 처지다.

승용차 위주의 교통 체계를 확 바꾸는 것이다. 시민 목소리를 충실히 대변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설문에서도 난곡운전·불친절 개선, 정류소 및 차량 시설 보강, 환승시간 연장, 버스정보시스템(BIS) 정확도 향상 등을 바랐던 점을 직시해야 한다. 2017년 이후 9년 만의 대규모 조정으로, 광주의 미래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광천권역에 조성 중인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와 주상복합단지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급행 간선버스를 도입하고, 광산구 소외지역에는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DRT)까지 검토하고 있다.

지난 1월 교통비 지원 정책인 ‘G-패스’ 시행과 함께 이용자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향후에 시내버스 노선 개편, 도시철도 2호선 개통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 시민들도 파급적으로 체감 가능한 대중교통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야 한다. 다양한 의견을 계속해서 내고 새로운 노선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 광주시는 혁신 애로사항은 없는지 재차 확인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매출 절벽 광주·전남 제조업도 한계 상황 내몰린다

광주상공회의소가 광주·전남 소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10곳 중 7곳은 올해 실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염려했다.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내수시장 침체, 수출시장 축소, 경쟁 심화 순이었다. 영업이익 역시 70% 이상이 미달을 예상했으며, 절반 정도가 손익 분기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답했다. 원인으로는 원자재 및 인건비와 더불어 금융비 상승 등을 지목했다.

지속한 내수 부진과 글로벌 경기 둔화가 겹쳤다. 어둡기만 한 경제 사정에서 지역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 추가적인 비용까지 더해지며 기업 활동을 짓누르고 있다. 자금 유동성 확보와 인력 수급 문제에도 골치를 앓고 있다. 앞으로 더 위축될 것이고,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 것이다. 복합 리스크 타개를 위해 국가적 지원 방안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도 이들은 법인세 등 비용 증가, 상법 공법거래법 등 규제 강화, 노사관계 부담 증대 등에 대해 우려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과 고용 노동시장 유연화, 위기산업 사업 재편 등 입법화를 건의하고 있다.

기업 경영에 비상등이 들어왔다. 광주·전남 제조업 상당수가 목표로 잡았던 실적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회복에 대한 희망은 절망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도 힘겨웠는데, 더욱 힘에 부치는 양상이다. 매출 절벽 앞에 무기력해지고 있다.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은 엄두도 못내고, 존립 기반마저 위태로운 지경이다. 연세 도산의 위험은 날이 커지고 있다. 얼마나 더 버틸지 모르는 고충을 절실하게 호소하고 있지만 당장에 뾰족한 해법도 없다. 지방의 풀뿌리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수도권 대기업까지 흔들리게 된다.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는 현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세제 및 금융 부담부터 완화해야 한다.

지역경제의 활력을 지원하고 경직된 고용·노동시장에 숨통을 틔워야 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구조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광주상공회의소가 공개한 경영실적 전망 및 애로요인 조사 결과, 한계 상황에 처한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즉시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이즘을여는詩

재미있는 병

조기호



엄마가
꽃을 따다
병에 꽂았다

꽃병이 되었다
방 안이 환해졌다

아빠가

술을 따라
병에 담았다

술병이 되었다
아빠 얼굴이 환해졌다

(동시집 ‘재미있는 병’, 초록
달팽이, 2024)

[시의논]

동심의 빛깔은 다양하기 그지없어 동심을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열추손으로 꿈을 만한 두드러진 동심 특성은 몇 가지로 요약된다. 낭만성과 포근한 인간성, 순수의 숨결이 만들어낸 원시성과 정직성이 그것이다. ‘재미있는 병’은 정직성이 시선을 끄는 동시다. 호수에 비치는 풍경처럼 마음에 투영된 세계를 솔직한 언어로 그려내고 있다. 엄마는 병에 꽃을 꽂는다. 꽃병이 된다. 아빠는 병에 술을 따라놓는다. 술병이 된다. 동심의 정직성은 어른들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질서와는 또 다른 동심 특유의 청초된 질서이다. 이 내적 질서를 스스로없이 작동시키는 데 자동화돼 있다. 정진은 흔들림이 없다. 외부의 방해물 거부한다. 숨길 수 없는 절대기치이기 때문이다. 정진은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 권태음의 ‘감자꽃’이 그 가치를 증거해 보여준 바 있다. 순수 정진은 감출 수 없는 법이라는 것을. 동심의 주체는 자신이 정직한 것처럼 대상들도 당연히 그러리라고 믿고 있다. 표정, 말, 행동에 감추는 정진이 나타난다고 믿는다. ‘자주꽃 핀 건 자주감자/파보나 마나 자주감자//아얀꽃 핀 건 아얀감자/파보나 마나 아얀감자’, 꽃이 밖으로 드러나 외로워만 감자알은 내면의 정진이다.

〈윤상현·시인〉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마케팅본부 경영지원부 사업본부 업무국	650-2099
	정치부	650-2030	사신부	650-2080		650-2070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650-2011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650-2007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